



“시민이 시장” 윤장현 제12대 광주시장이 1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부드러운 혁신” 이낙연 제37대 전남도지사가 1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상생 공조 ‘新영산강시대’ 열자

민선 6기 출범...시도지사 등 단체장·교육감 일제히 취임
정부 공모사업 공동신청 등 상생발전... 호남 역량 키워야

민선 6기를 맞는 광주와 전남·북이 ‘기반시설 미흡-산업기반 취약-젊은층 유출-고령화 지속-인구 감소’의 연결고리를 ‘신상생 전략’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선 5기 전복은 물론 광주와 전남마저 쪼개지면서 사실상 호남 발전의 동력을 상실한 것은 물론 정치·경제 전반에서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3면>

왜소해진 호남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배려까지 사라지면서 점차 실체화되는 ‘호남 위기론’에 맞서 광주, 전·남북이 ‘신상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규모 이상 기반시설의 공유를 전제로 그 혜택이 지역 곳곳에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통계를 마련해 객관적으로 검증해 상호 협조하는 것이 ‘신상생’의 핵심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

남지사도 1일 취임식에서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까지 포함한 상생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민선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빛가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이어 이번에는 ‘영산강’이 신상생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이미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 목표(사업)와 더불어 ‘신영산강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이는 G2(미국·중국) 시대와 ‘환경해권 경제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전남의 상생과 협력은 역사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전북을 포함한 호남 출신 전직 장·차관, 국회의원, 기관장, CEO, 대학총장 등으로 모임을 조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현직 포함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충청도에서는 이미 대전, 충남·충북 출신들이 백소(백제의 미소)회를 조직해 현안도 논의하고 지역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모임을 통해 중앙정부 설득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부지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영산강 경제특구 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과 관련 윤 시장을 빛가람 공동혁신도시에서 조속히 만나 우선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정부부처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부터 합의하겠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곁들였다.

윤 시장과 이 지사가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신상생’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시기보다 높아지고 있다. 무

안공황, 호남고속철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새만금 등이 소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다른 지역들이 기반시설 문제로 갈등과 마찰을 빚을 때 호남에서는 이러한 에너지를 신상생으로 승화시킨다면 중앙정부에 크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광주와 전남·북이 힘을 합쳤을 때 호남의 역량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고속철도 오송~송정 궤도공사 완공



호남고속철 오송~송정 1단계 궤도공사 마무리

5년 만에...내달 시험 운행

호남고속철도 1단계 구간 마지막 공사 구간이었던 광주 차량기지가 최근 완공되면서 충북 청원군 오송에서 광주 송정역을 잇는 총 길이 182.3km의 1단계 궤도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 2009년 첫 삽을 뜬 지 5년 만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이하 호남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충북 청원군 오송에서 광주 송정역을 잇는 총 길이 182.3km의 1단계 구간에서 시험운행을 거친 뒤 내년 3월 공식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호남본부는 지난 30일 광주차량기지가 있는 하남역에서 송정역 구간(총 길이 6.7km)이 완공되면서 1단계 공정(예산 6조 4000억원)은 모두 완료됐다고 1일 밝혔다.

호남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증속시험·차량성능시험·영업시운전 등을 거쳐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새정치, 순천 곡성 4명·나주 화순 5명 경선

7·30 재보선 경선 후보 확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이하 공관위, 위원장 주승용 사무총장)는 지난 30일 밤 회의를 열어 7·30 재보선 순천·곡성, 나주·화순지역 경선 후보를 각각 선정했다. <관련기사 4면>

순천·곡성 경선 후보는 구희승 변호사, 노관규 전 순천시장, 서갑원 전 국회의원, 조순용 전 청와대 정부수석(가나다 순) 등 4명이다.

나주·화순 경선 후보는 박선원 전 청와대 비서관, 송영오 새정치연합 상임고문,

신정훈 전 나주시장, 최인기 전 국회의원, 황기훈 전 국회의원 등 5명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선호투표제를 실시해 최종 공천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는 또 경기 평택을(乙)에 정장선 전 의원, 부산 해운대·기장갑(甲)에 윤준호 부산시당 대변인의 공천을 잠정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공천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반면, 공관위는 광주 광산과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나머지 호남 2곳의 경우 경선 원칙은 유지하되, 계속 심사기로 했다.

광주 광산을 심사과정에서는 수도권에서 4번 당선됐던 천정배 전 의원의 경선 참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일부 개진됐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또 담양·함평·영광·장성의 경우 공천 신청 후보 간 경쟁력 차이가 나면서 단순 공천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관위는 일단 1일에는 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새누리당의 공천 방향을 보가며 공천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공천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새누리당의 수도권 공천 상황을 보가며 당

순천곡성·나주화순 경선 후보

- ▶순천·곡성
구희승·노관규·서갑원·조순용
- ▶나주·화순
박선원·송영오·신정훈
최인기·황기훈 <가나다 순>

지도부와 의견을 조율해 공천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전남의 경우 8일까지만 경선을 마치면 9~10일 재심을 거쳐 11일 후보 등록(10~11일)을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사랑과 감사의 60년
1954
60th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한율 韓律
울려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하니까

갈색 솔잎 에너지로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한율 울려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항상 과거에만 있나요?
기존 대비 3.8배* 농축된 갈색 솔잎 추출물을 담아 새로워진 한율 울려원액을 만나보세요!
갈색 솔잎 추출물이 무더진 피부를 깨끗하고 피부 속 깊이 촉촉한 생기를 전달하니까
맑고 생생한 피부를 가진 오늘이 당신의 가장 예쁜 날이예요.

*100% 천연·100% 천연 갈색 솔잎 추출물 함유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를 위한 5가지 피부 개선효과

1. 피부가 촉촉하게 재워지는 느낌이다	100%	2.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러워졌다	99%
3. 윤기가 나뉘며 탄력 있어 보이는 느낌이다	99%	4. 피부가 맑아졌다	99%
5. 단단해 지도록 탄력해진다	98%		

*100% 천연·100% 천연 갈색 솔잎 추출물 함유

한국·미국·일본, 100% 천연·100% 천연 갈색 솔잎 추출물 함유. <www.pms.co.kr>에서 무료로 만나보세요. <고객상담실> (062-222-5254)